

주작인(周作人)의 루키아노스(Lukianos) 대화집 번역의 의의*

고운선**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그리스적인 것'과 거리두기
3. 앤드류 랭(Andrew Lang): 正統을 비트는 奇行的 학자
4. '非正典' 담화로서의 《루키아노스 대화집》
 - 4.1. 번역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 4.2. 학자형 번역가: 비판문헌학적 접근
 - 4.3. 허구 또는 부차적 담화 속에 비치는 '실재'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한 뒤, 周作人は 일본에 부여한 죄로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0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실제로는 2년 반 정도의 복역을 마친 뒤 중앙정부의 허가 하에 北京의 八道灣으로 돌아와 지내면서, 일본 고전문학과 고대 그리스문학을 번역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시기 그의 번역작업은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번역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周作人 본인의 심미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 이 논문은 2012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과제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B5A07035922)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국학부 강사.

있다. 특히 그의 나이 78세이던 1962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서, 1965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무리한 《루키아노스(Lukianos)대화집》은, “내가 평생 써온 글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말년에 번역한 그리스 대화집만큼은 50여 년 동안 염원해왔던 것임을, 식견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볼 것”¹⁾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의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周作人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뒤, 周作人の 번역작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각 논자들의 중심 논의는 대체적으로, 周作人は 성실하고 훌륭한 외국문학 번역가로서, (1)중국 신문학 건설에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문학을 소개한 선구자 중의 하나이며, (2)그의 번역작업은 국민성을 개조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 중의 하나로 그 의의를 정리할 수 있으며, (3)그가 번역한 작품들의 미학적 의의를 고려해볼 때 ‘풍자’ 방면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²⁾ 周作人の 고대 그리스문학 번역의 의의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성 개조’라는 평가는 분명 周作인이 형 魯迅과 함께 작업했던 최초의 번역집 《域外小說集》의 의의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³⁾ 周作인이 말년에 번역한 《루키아노스 대화집》은 1965년 탈고되었으나, 1954년 이후부터 서구 고전문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선이 경직되면서, ‘최근

1) 文洁若, <晚年的周作人>(《名人筆下的周作人》, 東方出版中心, 1998), 171쪽.

2) 韓笑, <發先聲於譯林, 求新知於異邦: 周作人的外國文學譯介>(吉林大學 碩士論文, 2012), 劉全福, <‘主美與移情’: 周作人古希臘文學接受與譯介思想述評>(《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第29卷第4期, 2006.7), 黎楊全, <解讀周作人的《對話集》情結>(《楚雄師範學院學報》第22卷第11期, 2007.11), 鄭家建, <遙遠的回嚮: 《故事新編》與《盧奇安對話集》的比較研究>(《魯迅研究月刊》第11期, 1999) 참고.

3) 王宏志는 《域外小說集》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번역집에 수록할 작품 선별과 번역작업의 비중, 이후 개정판의 출판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周作人の 번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人的文學’之哀弦篇: 論周作人與《域外小說集》>(《Journal of Chinese Studies》No.46, 2006) 참고.

출판계가 고대 그리스극과 르네상스 이후의 외국 현대극을 너무 많이 소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1991년이 되어서야 출판될 수 있었다.⁴⁾ 국민 중 누구도 접할 수조차 없었는데, '국민성 개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평가는 다소 앞서간 측면이 있다.

어느 번역가이든 본인의 작업을 통해 시공간을 가로질러 현재의 상황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보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周作人이 창작과 병행했던 오랜 외국문학 번역작업 역시 그런 점에서 중국문학에 자양분을 제공한 것은 맞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러한 사실 자체보다는, '그 자양분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동서고금의 수많은 풍자문학 중에서 왜 하필 루키아노스의 작품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작품의 어떤 점이 周作人을 사로잡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고대 그리스문학 작품의 번역과 소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⁵⁾ 그런데 周作人만큼 '2류'에 속하는 고대 그리스문학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인 번역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周作人은 고대 철학자들의 저서는 물론,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헤시오도스, 투키디데스, 아이스퀼로스와 같이 正典을 남겼다고 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번역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흥미도 낮았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周作人이 일본 유학 시절부터 주목했던 고대 그리스문학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유산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周作人의 《대화집》 번역의 특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4) 羅念生, <周啓明譯古希臘戲劇>(《名人筆下的周作人》, 東方出版中心, 1998), 195쪽. 그러므로 중국에서 '고대 그리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한 루키아노스 작품을 단행본으로 소개한 사람은 羅念生이 최초이다.(《疏善哲學文選》, 商務印書館, 1980. 'Lukianos'는 중국어로 '疏善'으로 번역되기도 함.)

5) 중국에 소개된 최초의 고대 그리스작품은 '이슈우화'이다. 明 萬曆~天開 연간 중국에 있었던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Matteo Ricci)가 《崎人十篇》에서 몇 편을 소개한 이래, 스페인·프랑스 선교사 등이 부분적인 번역만 했는데, M.Robert Thom이 <意拾喻言>이라는 제목으로 《廣東報》(1840년, 총82편)에 게재한 것을 본격적인 번역으로 본다.

그의 작업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周作人이라는 인물에 한발 더 다가가는 방편이 될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그리스적인 것’과 거리두기

1917년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周作人은, 北京大學에 재직하면서 외국문학사 강의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학 시절부터 수집해왔던 각종 자료들과 작품들을 수합하여 《歐洲文學史》(1918.6.商務印書館)를 출판했다. 이 책은 당시 학술계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北京大學과 교과서 시장을 선점한 商務印書館의 명성 덕분에, 1930년대 즈음에는 웬만한 대학의 외국문학사 교재로 채택됐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다.⁶⁾

이 책은 크게 그리스·로마·중세와 문예부흥·18C와 같이 시기별로 구분하고, 서사시와 희·비극뿐만 아니라 ‘개혁파’의 일원답게, 文·雜文·雜詩歌와 같이 다양한 장르, 민간 문학작품, 주류 도덕을 비트는 반권위적인 문화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시대별 분류체계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한정된 지면에 프랑스·영국·독일·남·북 유럽의 대표 작가와 작품들을 최대한 언급하려다 보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고, 각 작품에 대한 저자의 감상의 깊이나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다소간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문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 선별된 작가와 작품들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연 눈길을 끌만한 사항인지, 먼저 《學衡》의 주요 집필진 중 하나였던 吳宓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6) 茅盾은 1923년 上海大學에서 ‘西方文學史’를 담당했을 때부터 이 책을 사용했다고 한다.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周作人의 분류체계에 따라, 《騎士文學ABC》(1929), 《希臘文學ABC》, 《北歐神話ABC》(1930)등을 잇달아 출판하기도 했다.(丁欣, 《中國文化視野中的外國文學》, 復旦大學 博士論文, 2004, 26~27쪽.)

알다시피 東南大學을 거점으로 1922년에 창간된 《學衡》은, 北京大學을 거점으로 하는 《新青年》과 대립각을 세우며, 문학의 진화와 발전, 新舊 동서 양 문학에 대한 평가, 중국문학의 향후 발전 방향에 있어 시각차를 보여준 대표적인 잡지이다. 특히 西洋文學系 교수였던 吳宓는,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 어빙 배비트(Irving Babbitt, 1865~1933)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고전에 정통한 사람이었다.⁷⁾ 《新青年》잡지의 경향이 못마땅했던 그는, 문학사란 먼저 문학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유럽 각국의 문학사를 먼저 공부한 뒤 서양문학 전반에 대해 논해야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편파적으로 외국 작품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吳宓의 <그리스 문학사>은 ‘호메로스 서사시’와 ‘헤시오도스 교훈시’를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서사시/교훈시의 기원에서부터 서사시/교훈시의 내용, 시의 구조, 저자 略傳, 작품에 대한 평가, 후대에의 영향, 중국문학과의 비교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⁸⁾ 동시기 서양학계의 권위자들의 연구 성과 및 시의 기법과 구조 확립, 언어 사용과 운율, 서양의 서사 종류를 중국의 《三國演義》, 《封神榜》, 《彈詞》 등과 비교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周作인의 시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스스로가 제시한 ‘문학사 서술’의 조건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종교·정치·풍습·인정풍물이나 고대 그리스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과 이를 전제로 한 그리스 문학의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저작에 관해 설명하는 데 그친 한계가 있다. 심지어 두 번째 헤시오도스 편은 분량도 현저하게 적을 뿐 아니라, 헤시오도스가 사용한 단어에 ‘지

7) 당시 비교문학과 교수였던 배비트는, 미국의 고등교육이 단순히 근대적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닌, 전인적인 사회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미덕을 확립해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理想과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를 다시 살펴보되, 동서 각국의 인문주의자(humanists)를 한데 묶은 새로운 인문주의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했다. (Irving Babbitt著·張沛, 張源譯, 《文學與美國的大學》, 北京大學出版社, 2004, 1~22, 58~74쪽 참고.)

8) <希臘文學史 第一章荷馬之史詩>(《學衡》13期, 1923.1. 본문을 마친 뒤 ‘附識’에서, ‘문학사’ 서술 시 필요한 조건들을 덧붙이고 있다.), <希臘文學史(續第十三期) 第二章 希霄德之訓詩>(《學衡》14期, 1923.2.)

역 방언'이 많고, 문체 자체가 기존 서사시의 패턴을 파괴하고 너무 간결하여, 예술적으로 호메로스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어떤 기준으로 두 사람만을 선별하여 <그리스 문학사>을 서술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두 편은 吳密가 중국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한 소위 '그리스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장이 게재된 《學衡》제13기에는, 눈 먼 유랑시인 호메로스와 트로이의 장자 헥토르 그리고 그의 부인 안드로마케의 삽화 2개가 표제로 실려 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종합·정리한 것이다. '호메로스'라는 이름이 당시 유랑시인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사시로서의 완성도 즉,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용기를 배우고, 그 용기를 신성한 땅과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관철시킨, 공동체를 사랑한 고결한 인간인 '헥토르의 형상'과 부부로서 서로 평등하게 사랑했으며, 어린 아들을 억울하게 잃고 적군에게 끌려가면서도 남편을 향한 존경과 트로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았던 '안드로마케의 형상'을, 사실 호메로스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적인 가치, 즉 극한의 고난 속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하는 (도시) 시민의 미덕'의 예술적 형상화는, 훨씬 더 이후를 기약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⁹⁾ 이처럼 호메로스의 저작에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인본주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吳密는 유럽문학사를 통틀어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호메로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新青年派에게 '기원'으로서의 전통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중국의 전통적인 詩教觀에 입각한 문학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했다¹⁰⁾고 볼 수 있다.

실제로 吳密는 周作人처럼 서양문학사 전반을 조감하기 위해 그리스 문학사를 썼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吳密는 이후 헤시오도스에 이은 문학

9) 앙드레 보나르, <chapter2 《일리아스》와 호메로스의 휴머니즘>, 《그리스인 이야기1》(책과함께, 2011) 참고.

10) 杜心源, <西方古學的東方面相>, 《中國比較文學》總第85期(2011年第4期), 104~105쪽.

사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당대 서구 현대문명에 내재된 위기는, 그 문명 내부의 타자로 인식되었던 고대 그리스문명이라는 ‘고전 정신’을 통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는 내용의 머레이 교수(G. Murray, 1866~1957)의 <그리스의 유산>을 번역·소개했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吳密가 파악한 그리스적인 가치는 ‘민주’·‘용기’·‘우정’·‘지혜’와 같은 단어로 대표되는, ‘正統的’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吳密의 정통적 학술방식은, 중국의 비교문학 연구에 있어 핵심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여, 중일전쟁을 치르는 포화 속에서도 西南聯大를 통해, 많은 젊은 시인들을 배출하는 데 그 공이 적지 않았다.¹²⁾

반면 周作人は 호메로스와 그의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후광에 매혹되지 않았다. ‘호메로스’라는 이름의 다양한 유래를 통해, 실은 그가 뛰어난 한 명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디세이아》에 나타난 사회상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한 명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당시의 최신 성과까지 굳이 언급했으니 말이다. 또 헤시오도스에 대해서는, 타지 출신으로서 그리스 지역에 구전하는 제재를 취하여, 왕족·귀족의 미덕을 노래하는 시풍과는 다른, 농사일과 평민의 삶에 관한 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대 사회에서의 농사의 중요성과 민간의 정황을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예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고 덧붙였다.¹³⁾ 방언과 간결한 문체 때문에 호메로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호메로스 풍과 쌍벽을 이룬만한 일파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하겠다.

周作人は 일본 유학 시절에, 24년간 ‘일본 아메리카성공회’의 요직을 역임했던 터커(Henry St. George Tucker, 1874~1959) 신부에게서 고대 그리스어를 배웠다.¹⁴⁾ 당시 사용했던 교재 내용은 플라톤, 크세노폰 같은 고대 그리스

11) <希臘之流傳第一篇 希臘對於世界將來之價值>(《學衡》23期, 1923.11.) 참고. 길버트 머레이는, 20C 전반기, 옥스퍼드대에 재직했던 고대 그리스신화 연구의 권위자로서, 당시 고전 문헌학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던 학자이다. 周作人 역시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고 번역할 때, 이 사람의 저서를 참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姚丹, <西南聯大中文系, 外文系和校園里的新文學創造>(《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9.01期) 王順曉, 《吳密在清華大學的教育實踐研究(1925~1937)》(河北大學 碩士論文, 2007) 참고.

13) 周作人, 《歐洲文學史》(東方出版社, 2007), 11~20쪽.

문학의 주요 인물들의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周作人은 그런 '정통방식의 글(正統古文)'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원래는, 南京水師學堂 시절부터 문학으로서의 《성서》에 매료되어, 《신약성서》의 '4복음서'를 佛經 같은 고풍스런 문장으로 번역해 보고자 하는 당찬 포부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그의 포부와 모순되게도, 그는 헬레니즘 시대 때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는 테오크리토스,¹⁵⁾ 헤론다스¹⁶⁾와 로마 초기의 루키아노스,¹⁷⁾ 롱고스¹⁸⁾와 같은 사람들의 글에 관심을 가졌다.¹⁹⁾ 이들은 그리스 문학사에서 각각 전원시, 대화식 寸劇(mimiambos), 산문, 소설의 창시자이자 대표 작가들로서, 장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없지만, 백성들의 소소한 일상과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취하고 있어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인정풍물과 민간의 풍습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周作인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작가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이

- 14) 상세한 내용은, 根岸宗一郎의 <周作人とH.S.タッカー>(《中國研究月報》55號, 2001)를 참고하시오.
- 15) Theokritos(B.C.3세기 경 추정): 총30편의 글을 남겼는데, 목동이나 농부들이 일할 때 번갈아 부르던 노동요를 시로 발전시켜, 통상 '전원시의 창시자'로 불린다. 周作인이 1914년(<諱阿克列多思>, 《中華小說界》2期, 《自編文集》 미수록), 1918년(<古詩今譯>, 《新青年》4卷2號), 1924년(<私語>, 《陀螺》, 新潮社 수록), 1934년(《希臘擬曲》, 商務印書館)에 번역한 바 있다.
- 16) Herondas(B.C.3~2세기 경 추정): 그의 글들은, 1889년 대영박물관이 실시한 이집트 발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파피루스 조각에 남아있어 총8편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데, 周作인이 터키 신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번역한 첫 번째 고대 그리스작품이다. 1916년(<希臘擬曲二首>, 《中華小說界》10期, 《自編文集》 미수록), 1924년(<蜜談>, 《陀螺》, 新潮社 수록), 1934년(《希臘擬曲》, 商務印書館)에 각각 게재·출판되었는데, 1916년의 작업은, 중국 사회에 헤론다스의 존재를 소개한 최초의 작업으로 추정된다.
- 17) Lukianos(2세기 경 추정): '죽은자들의 대화'라는 형식의 창시자로서, 르네상스 이후 프랑스의 라블레(Rabelais)·퐁트넬(Fontenelle), 영국의 스위프트(Swift)·헨리 필딩(Henry Fielding) 등 서양의 주요 풍자 작가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周作인은 1924년 《陀螺》(新潮社)를 통해, 그의 작품 중 '기녀들의 대화' 3편을 우선적으로 번역한 바 있다.
- 18) Longos(2~3세기 경): 고대 그리스문학에서 '최초의 소설(romance)'인 <다프니스와 클로에>을 남겼는데, 周作인은 이 작품의 일부를 1924년(<希臘小說段片>, 《晨報·文學旬刊》(1924.11.5.)), 《陀螺》(新潮社, 1924)수록)에 번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910년에 발표한 <希臘之小說>(《紹興公報》(7.31, 8.1))은, 중국에서 최초로 롱고스에 대해 소개한 글로 추정된다.
- 19) <<希臘擬曲>序>(《自編文集》 미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00쪽.

이야기가 전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情感的 감응으로서의 문학(literature)’을 중심으로, 한창 신문학운동에 종사했을 당시 ‘정감 감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언급했으니 말이다.(<人的文學>) 또한 고대 그리스의 주요 작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감량을 고려해서, 대체로 길이가 짧아서 선택했다고 하는 상기한 작가의 작품들은, 내용상으로나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나 예상보다 뭔가 대단한 것이 없다.

순진한 처녀가 젊의 목동의 과감한 유혹으로 인해 여인이 되는 이야기(<私語>), 한창 수확하는 철에 상사병에 걸려 낫을 놓은 젊은이를 다그치는 선배 농사꾼 이야기(<古詩今譯>, 이상 테오크리토스), 남편을 멀리 떠나보낸 젊은 과부가 지조를 지키는 이야기(<媒媼>), 아끼는 딜도(dildo)가 도대체 어느 친구에게 떠돌고 있는지 은밀한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주고받는 부인들의 이야기(<蜜談>), 빠듯한 살림에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아들여 제자를 호되게 매질하는 훈장 선생 이야기(<塾師>), 남자 하인을 情夫로 두고 있는 여주인이 혹시 그가 한눈을 팔지 않을까 지레 걱정하여 다투는 이야기(<妬婦>, 이상 헤론다스),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전장에서 유혈사태를 떠벌리던 병사가 망나니 같은 남자는 안을 수 없다는 헤타이라(hetaira: 고급 매춘부)에게 거절당하는 이야기(<大言>), 화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헤타이라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자 난동을 부리는 병사 이야기(<兵士>), 못생긴 동료 헤타이라에게 뺏긴 情夫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법사를 찾는 어느 헤타이라의 이야기(<魔術>, 이상 루키아노스), 젊은 남녀 한 쌍이 에로틱한 첫사랑에 빠져드는 이야기(<希臘小說段片>, 룡고스)와 같이, 모두 사랑타령과 잡다하고 하찮은 일상에 관한 것뿐이다.²⁰⁾

周作人は 상기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人情이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목격되는 위선과 방탕함, 사랑의

20) 《陀螺》, 新潮社, 1924, 1~65쪽 참고. 이 단행본에 <塾師>과 <妬婦>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希臘擬曲》(1934)를 구하지 못해서, <妬婦>은 이 작품에 관한 周作人の 평론과 Graham Zanker, 《Herodas: Mimiambes》(Oxbow Books, 2009)에 실린 영문본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열병,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무시, 인간의 비열함과 천박함을 고대 그리스사회에서 똑같이 목격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의명분을 위해 영웅적으로 죽을 수 있는 삶의 형태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적군조차 고상하고 기품 있는 어조로 상대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만은 아니라고 파악했다. 상류층 여성에게 애인 하나쯤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며, 자신이 번역할 때 ‘角先生(=dildo)’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꽤나 퇴폐적인 사회였던 것이다.²¹⁾ 문예를 관장한다고 하는 ‘뮤즈(muse)’ 역시 그 기원 자체가 농도 짙은 섹슈얼리티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고 이 말을 사용해야지, 이러한 어원을 지우고 작금의 중국 문예계에서처럼 ‘도덕적 이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진정한 그리스문화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²²⁾ 즉 찬란한 고대 그리스문화의 영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수많은 전쟁 피해자, 특히 여자와 아이들의 피를 제물로 바친 잔인하고 슬픈 역사임을 周作人은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하겠다.²³⁾ 그가 크세노폰의 글을 ‘正統古文’이라고 표현한 것도, 전쟁터에서 버려진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한낱 메뚜기 떼와 같은 게걸스런 존재로 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규율’과 ‘위엄’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또 그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²⁴⁾라는, 크세노폰의 장중한 메시지의 성격 때문은 아니었을까?

21) <<妬婦>譯後記>(1930.7. 《駱駝草》10期, 《自編文集》미수록), 《周作人文類編⑧》, 198쪽, 《知堂回想錄·上》, 246쪽.

22) <神話의典故>(1924.9.10. 《晨報副鐫》, 《雨天的書》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7~28쪽.

23) <忒羅亞의婦女>(1924.8. 《小說月報》15卷8號, 《永日集》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50~259쪽.

24) M.I. 핀리·이용찬 외 옮김, 《그리스의 역사가들》(대원사, 1991,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편), 이탈리아 칼비노 지음·이소연 옮김, 《왜 고전을 읽는가?》(민음사, 2008), 34~42쪽 참고.

3. 앤드류 랭(Andrew Lang): 正統을 비트는 奇行的 학자

周作人の 번역작업 중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단연 《紅星佚史(원제: World's Desire, 1890년 작)》(1907, 說部叢書第78編, 商務印書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周作人の 신화학과 동화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앤드류 랭(1844~1912)과 당시 제법 인기 있었던 대중소설가 해거드(Henry Rider Haggard, 1856~1925)²⁵⁾가 함께 쓴 환상 모험소설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소설은, 周作人에게 있어서는 《域外小說集》(1909)보다 먼저 출판된 최초의 단행본 번역서이다.²⁶⁾

서양문학의 원류에 관심이 많았던 周作人은, 당연히 그리스신화와 신화학에 대한 자료까지 섭렵했었다. '신화'라는 괴이하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에 관한 해석에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설들을 중심으로 신화를 이해했다. 신화 문제를 다루면서 周作人이 접한 책과 학자들의 수는 상당한데, 그중에서 周作人이 자주 언급했던 학자로는, 제인 해리슨(J.E.Harrison)을 제외하면 앤드류 랭밖에 없다 하겠다.²⁷⁾

25) 다른 형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해거드는,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지역의 외교 공관에서 일할 때 습득한 아프리카 줄루족의 언어·역사·풍습을 바탕으로 《솔로몬 왕의 금광(King Solomon's Mines)》(1885)을 써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가이다. 1887년에 《그녀(She)》를 발표하자 앤드류 랭이 《그(He)》라는 소설을 써서 화답했다고 할 정도로 둘 사이의 돈독했는데, 이러한 해거드의 소설은 근대 중국에도 일찍부터 소개되었다.

26) 이 소설 중 시가 나오는 부분만, 文雅한 詩作에 자신이 없었던 周作人을 대신해 魯迅이 해줬을 뿐, 나머지는 모두 周作人이 번역했다.(《知堂回想錄·上》, 河北教育出版社, 243쪽.)

27) 周作人이 서구의 신화와 신화학에 이해하기 위해 참고했던 책들은 상당히 방대하다. 일례로 몇 사람만 들여보자면, 각주11)에서도 언급했던 머레이(G.Murray)·제4장제2절에서 살펴보게 될 라우스(W.H.D.Rouse)·게이레이(C.M.Gayley: 1858~1932, 버클리대 고전학 교수)·《황금가지(The Golden Gough)》로 유명한 프레이저(J.Frazer)와 같이 대학교수가 쓴 것뿐만 아니라 서구 작가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언급되어 오늘날까지도 대중

周作人是 신화·전설·민담·동화 속에서 인간의 신앙과 습속의 원형을 밝혀내는 앤드류 랭의 인류학적 해석 방식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방식대로 읽어보면, 잔인하고 괴이하기만 한 신화 속 이야기에 人情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대사회의 정황까지 고증할 수 있어서 황당한 이야기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²⁸⁾ 흥미로운 점은 周作人을 학술적으로 설득시켰던 앤드류 랭이, 그의 전 방위적인 학계활동과 영미권의 대표적인 아동 도서 ‘색깔별 동화 시리즈(Colored Fairy Books)’를 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신화학·인류학 역사에 있어 ‘2류’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앤드류 랭은, 오늘날 영국 인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 1832~1917)의 학설에 맞서면서 인류학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²⁹⁾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식민지 개척과 맞물려 유럽 이외의 지역에 관한 탐험가들의 일지와 여행기가 대중적으로 발간되고,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낯선 문명을 등급을 나누어 인식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했다. 타일러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서사(이야기)가 유사 언어 민족들의 확산 때문이라는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학계를 장악했다. 그런데 앤드류 랭이 타일러가 인도-유럽 쪽 데이터만 수합함으로써,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도 발견되는 유사 서사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론’이라 내세운다고 지적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야만성(primitive)’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었다. 인류의 유

적으로 읽히는 파스(W.S.Fox: 1916~1932)·로즈(H.J.Rose: 1883~1961)같은 작가들이 쓴 그리스 신화, 심지어 왕립 인류학회 회원으로서 앤드류 랭과 대립했던 스펜스(Lewis Spence: 1874~1955)의 글까지 본인이 구할 수 있었던 한에서 최대한 입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 신화 판본과 신화학술 검토했던 것은, 사람에 따라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希臘神話>(1934.5.《青年界》5卷5期, 《夜讀抄》수록), 《周作人文類編》8), 75~81쪽 참고.) 그러므로 周作人의 앤드류 랭에 대한 애호는, 본인의 선별에 의한 자각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 28) <荷馬史詩>(1916.6.《若社叢刊》3期, 《自編文集》미수록), 《周作人文類編》8), 7~8쪽.
 29) 앤드류 랭의 영국 인류학 학계에서의 활동과 구체적인 업적은, Eric L. Montenyohl, <Andrew Lang's Contributions to English Folk Narrative Scholarship>(《Western Folklore》Vol.47, No.4, 1988)를 참고했다.

사성과 일관성은 거의 같은 등급의 문명을 가진 인종들을 비교함으로써 적절히 연구될 수 있다는 타일러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던 앤드류 랭은, ‘크로노스와 제우스 신화’가 뉴질랜드 마오리족·아프리카 부시먼족에게서도 발견되며, 유럽인의 하얀 피부 아래 남겨진 야만성 역시,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욕망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화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거의가 비이성적인, 명백히 의미 없는 관습이라는 것이 타일러의 시각이었다면, 현재 살아남은 비이성적인 것과 미신적인 습속은 한때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자 ‘매일의 인간의 삶에서 가능한 사건들’이었으므로, 유사한 심리상태가 유사한 행위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야만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앤드류 랭의 입장이었다.³⁰⁾ 이러한 타일러와의 논쟁의 결과물로서 나온 책이 《Myth, Ritual and Religion》(1887)이다. 이 책은 《Custom and Myth》(1883)와 함께 周作人의 ‘신화’ 관련 글에서 종종 등장한다.

현대 그리스 문예와 종교사상으로부터 협소한 향토관념·극심한 권력투쟁·전통고수·미신·사기와 같은 중국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를 끌어내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周作人의 화법을 통해 그가 끼친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³¹⁾ 전혀 교류가 없었던 민족들 간의 유사성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 상태의 유사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 차원에서 말이다.

周作人은 앤드류 랭의 신화학·문학사·평론·고전번역·동화 동요 연구까지 골고루 수집했었는데, 그의 글은 고증의癖을 자극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져서 재미있다고 했다.³²⁾ 흥미로운 것은 周作人이 ‘예술품’이라 지칭한 바로 그러한 글쓰기 방식 때문에, 앤드류 랭은 ‘프로페셔널하지만, 아카데미하지는 않은’ 저술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상기한 책들의 출판으로 앤드류 랭은 영국 인류학계의 리더로서 인지도를

30) Robert Michalski, <Towards a Popular Culture: Andrew Lang's Anthropological and Literary Criticism>(《Journal of American Culture》Vol.18, Issue3, 1995), 15쪽.

31) <新希臘與中國>(1921.9.29. 《晨報副鐫》, 《談虎集》수록), 《周作人文類編》⑧, 9~11쪽.

32) <我的雜學之七>(1944.6.18. 《華北新報》, 《苦口甘口》수록), 《周作人文類編》⑧, 5쪽.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Folk-Lore Society에서 학자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의 동화와 민담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의 ‘유형들’을 분류하여 세계 최초의 ‘tale-type index’를 만들기도 했다. 프로이트가 《Totem and Taboo》(1913)에서 그를 16번이나 언급할 정도였으며, 상기한 위세를 몰아 1891년에는 International Folk-Lore Society의 회장직까지 역임했다. 그러나 앤드류 랭의 ‘야만성’에 대한 시각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시 부상하던 ‘대중(popular) 소설’ 또는 ‘로맨스 소설’과 맞물려서, 역설적이게도 ‘비이성적이고, 기이하고, 퇴폐적이고, 낯선 것일수록 야만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말았다.³³⁾ 오늘날 현대 인류학에서 이들의 학설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똑같이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타일러는 현대 인류학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첫 페이지에 살아남았고,³⁴⁾ 앤드류 랭은 사라졌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앤드류 랭은 자신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소설’ 형식을 차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정착되어 있었던 해석학적 방법과 학자들의 도도한 엘리트적 태도에 도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³⁵⁾ 즉 인류학이라는 진지한 학문의 영역을 소설적으로, 그것도 대중적인 환상소설 형태로 다뤘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주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아카데미한 고고 인류학 이론을 낱알이 조사하여, 자신이 창작한 소설 속에 고고학적 데이터와 소위 선사시대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표준적인 인류학적 방법들을 풍자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가장 명백하고 상식적이라고 인정받은 해석조

33) Robert Michalski, <Towards a Popular Culture: Andrew Lang's Anthropological and Literary Criticism>(《Journal of American Culture》) 참고. Robert Michalski는, 앤드류 랭이 저급한 대중소설과 고전작가 대열에 들 수 있는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의 작품을 동시에 애호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살았던 바로 그 시기에 진화론적 인류학과 대중소설이라는 영역이 함께 성장·정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34) 제리 무어 지음·김우영 옮김, 《인류학의 거장들》(한길사, 2002, 37~52쪽) 참고.

35) 앤드류 랭은 당시 막 발굴되었던 헤론다스의 글을, 학계에서 하찮은 내용이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The Mimes of Herondas》, 《The Contemporary Review》Vol.60, 1891, 821~826쪽 참고.)

차 실은, 신화의 파편 조각을 인위적으로 조합·처리하는 학술적이지 못한 임의적인 방식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겠다.³⁶⁾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환상 소설’ 중의 그저 그런 하나로 읽히겠지만,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앤드류 랭이 인류학자들에게 거는 논쟁으로, 신화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읽힐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설적 기법으로, 학계의 풍토와 빅토리아 사회를 비판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가 존경하고 찬양하는 신앙심과 전통들이, 실은 인류학에서 밝힌 ‘야만적인’ 선사시대 조상들의 기괴한 관습만큼이나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발전을 파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앤드류 랭이 심혈을 기울여 수집했던 자료는 선사시대의 것이었지만, 그의 연구 동기는 고대사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류학을 통해 자기가 살아가는 동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앤드류 랭이 인류학의 범위를 ‘유령’·‘영혼’·‘맨발로 불 건너기’·‘도깨비불’과 같은 영역까지 넓힐 것을 주장했을 때부터, 그의 견해는 학회에서 무시되기 시작했다. 앤드류 랭이 초자연적 이야기 연구, 요정 이야기의 시리즈 발행, 직접적으로 동화 창작에 종사하게 된 것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루트를 찾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 중 일부가 심리연구회 발행으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앤드류 랭의 세력이 약화되자 Folk-Lore Society의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 역시 정체되었다고 한다. 周作人이 앤드류 랭에게서 느꼈던 소위 ‘예술적’인 글쓰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奇行的 풍자 방식과 학문적 진지함을 맞바꾼 사람으로 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고 周作人이 앤드류 랭의 아마추어적인 색채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은

36) Julie Sparks, <At the Intersection of Victorian Science and Fiction: The Romance of the First Radical>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1889-1920》Vol.21, No.2, 1999), 128~132쪽 참고. 앤드류 랭은 <In the Wrong Paradise and Other Stories> (1887)라는 소설에서, 당시 아카데미 학자들의 학설대로 본 잉글랜드의 기원을 패러디했다고 한다.

또 아니었다. 鄭振鐸과 같이 정통 학자가 서구의 주류 학설을 받아들여, 신화를 고대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에 주의를 표하기 위해 앤드류 랭의 풀이 방식을 소개하면서도,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다.³⁷⁾ 실제로 周作人は 앤드류 랭의 시각을 가져와 언어학적 해석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리스신화에서 유래된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는 작업도 병행했었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作人は 앤드류 랭의 서사 전략에 호감을 느꼈다. 이러한 통속적인 방식이, '신화'라는 것도 종교계나 학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⁹⁾ 나아가 신화학을 민속학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문화 생산에 있어 보통 사람들의 역할을 합법적이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심미적 표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4. '非正典'담화로서의 《루키아노스 대화집》

4.1. 번역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앞 장에서 살펴본 고대 그리스 작품들에 대한 周作人의 번역작업에 대한 의지는, 신문학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었지만,⁴⁰⁾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외국작품이 출판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37) <續神話의辯護>(1924.4.10. 《晨報副鐫》, 《雨天的書》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2쪽.

38) <舍倫的故事>(1924.10.15. 《晨報副鐫》, 《雨天的書》 수록), <神話의典故>(1924.9.10. 《晨報副鐫》, 《雨天的書》 수록), <牧神之恐怖>(1926.5. 《語絲》79期, 《自己的園地》 수록), <希臘閒話>(1926.12.24. 《新生》1卷2期, 《自編文集》 미수록)

39) <續神話의辯護>, <希臘神話二>(1934.5. 《青年界》5卷5期, 《夜讀草》 수록), <希臘之餘光>(1944.8. 《藝文雜誌》7~8期, 《苦口甘口》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0쪽, 76쪽, 112쪽.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30년대로 접어들어 중국사회에 세계문학전집이 대량으로 간행됐다. 교과서 시장의 최강자 商務印書館이 인문·사회·자연과학을 망라한 1700여종 이상의 《萬有文庫》(1929~1939) 시리즈를 출판하자, 경쟁 관계에 있던 世界書局 역시 《世界少年文庫》(1928)를 간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타 여러 가지 문고 시리즈가 대량 쏟아져 나왔는데, 開明書店에서 '世界少年文學叢刊'이 기획되어 《그리스신화》, 《일리아드》, 《이솝우화》 등이 출판되자, 鄭振鐸은 周作인에게 아예 그리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한 번역서를 출간할 것을 제안했다.⁴¹⁾

출판업계와 학계에서의 활동을 병행했던 鄭振鐸은, 중국 현대 번역사에서 문단의 저명한 원로·신진학자들과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최초의 총서라 평가받는 《世界文庫》시리즈(1935, 生活書店)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그가 기획한 총서에는, 시장성을 1순위로 꼽는 출판시장의 원칙에서 벗어나, 통상 동·서양의 경전 작가들로 손꼽히는 사람들의 작품을 제외한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鄭振鐸은 스스로가 훌륭한 영문 번역가였으므로 그리스 신화류를 이미 번역한 적도 있었으나, 당시 중국에서의 그리스·로마 고전 대부분이 영문본을 重譯한 것이었기 때문에, 周作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이다.⁴²⁾

마침 北京大學에는 에우리피데스의 <타우리케의 이피게네이아>(1933년 탈고, 1936년 上海商務印書館 출판)를 고대 그리스어에 입각하여 번역한, 중

40) 根岸宗一郎, <周作人とギリシア文學: 1921年における轉回を中心に>(《東京大學中國語中國文學研究室紀要》第3號, 2000.4) 참고. 錢理群은 周作인의 번역작업을 1925년을 기점으로 러시아·약소민족문학→고대 그리스·고대 및 중세 일본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 반면, 根岸宗一郎은 1921년 西山에서의 요양 이후, 周作인이 문단과는 다른 문학관을 구상해가면서, 근현대 동유럽 문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이 끊어졌다고 본다. 실제로 周作인의 러시아·동유럽 문학 번역은 초창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후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민간고사'를 번역했다.(《俄羅斯民間故事》(香港大公書局, 1952), 《烏克蘭民間故事》(天津人民出版社, 1953))

41) 彭麗熔, 《世界書局文學出版情況研究(1917~1949)》(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10), 張黎明, <鄭振鐸出版活動探析>(《北京大學學報》第46卷第1期, 2009.1) 참고.

42) 姜娜, 《1930年代的鄭振鐸和他的多重文化空間》(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5.), 付偉, <從《世界文庫》看鄭振鐸出版策劃的成功與失敗>(《文教資料》, 2012.4.下旬刊) 참고.

국인 최초로 서양 문헌학을 체계적으로 배운 羅念生(1904~1990)⁴³⁾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周作人이 번역한 헤론다스와 테아크리토스의 작품들을 묶은 《希臘擬曲》을 읽고, 周作人의 고대 그리스어 실력과 번역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20년 정도 나이차가 나는 선배 동료 周作人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번역 원고를 검토해주는 번역 파트너가 되었다. 여기에 北京의 대학교와 도서관 및 교육계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中華文化教育基金會의 실무자였던 胡適은, 周作人和 羅念生の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1936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했으나 다음해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羅念生은 北京을 떠나 홍콩을 경유하여 成都에서 그리스 희·비극 번역작업을 했고, 周作人は 北京에 잔류하면서 아폴로도로스(Apollodorus: 1~3세기 인물로 추정)의 《그리스 신화(The Library)》를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했다.⁴⁴⁾

전쟁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통구·해방구·일본 점령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사회의 외국문학 번역작업은 면면히 지속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쟁기간 8년 동안 대략 1150여종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불안한 출판환경과 물가상승, 국민당·일본 군정의 검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국문학 번역서가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번역가와 학자들의 '외국문학 소개'를 통해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방식이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았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수적으로는 여러 국가의 反파시즘 문학과 소비에트 연합의 문학, 다음으로 反戰 문학이 우세했지만,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로마

43) 羅念生은 《古希臘語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4)을 만들었을 정도로 미국대학에서 고전문헌학을 정통으로 배운 학자이다.

44) <亞坡羅陀洛斯>, <希臘神話>(1944.10. 《藝文雜誌》2卷10~12期, 《周作人文類編⑧》), 115~148쪽, 羅念生, <評希臘神話(鄭振鐸編著)>(《羅念生全集》第8卷, 上海人民出版社, 2004.), 306쪽.(周作人의 아폴로도로스 번역은 1937~38년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希臘神話>의 끝에 붙어 있는 '譯者附記'에 따르면, 번역이 완료되는 분량만큼 계속해서 잡지에 게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책을 소개하는 서문과 제1장의 반절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완역했는지는 알 수 없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에도 현재에도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은 없다.)

시대의 소위 서양의 고전작품들 역시 선호되었다.⁴⁵⁾

특히 羅念生이 번역한 에우리피데스 비극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몰락 시기를 바라보는 에우리피데스 자체의 시각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과 문명의 오만을 비판하는 反戰 문학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⁴⁶⁾ 그 중에서도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 여성으로서의 모욕까지 감내해야 하는 패전국 여인들의 비참한 정황을 그린 <트로이의 여인들> 은,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호소력이 짙은 작품이었다. 羅念生은 이 작품을 통해, 부당한 전쟁에 저항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인간의 명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⁴⁷⁾

반면 周作人은, 1939년 일본 점령 하에서 北京大學 도서관장직을 수락하고 1940년 華北임시정부의 教育督辦職(對日 협력의 혐의)을 맡은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기간과 전쟁 종식 후 적국에 부여한 혐의로 옥살이를 겪는 내내 고대 그리스 문학 번역작업을 중단했다.⁴⁸⁾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1949년이 되어서야, 南京·上海 등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北京의 八道灣 집으로 돌아

45) 陳言, <抗戰時期翻譯文學述論>, 《抗日戰爭研究》2005年第4期 참고. 羅念生の 경우, 1938년에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長沙商務印書館 출판), 1940년에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長沙商務印書館), 1943년에는 에우리피데스의 <알케스티스>(重慶古今出版社), 1941년에는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의 여인들>(1941년 홍콩이 일본에 점령되어 1944년 重慶商務印書館 출판)을 번역했다.

46) 앙드레 보나르, 《그리스인 이야기3》, 책과함께, 2011, 3~73쪽 참고.

47) <<特洛亞女人>>引言>, <談偉大作品>(《羅念生全集》第8卷), 234~261, 318~320쪽. 羅念生에 따르면, 사실 이 작품은 周作人의 지속적인 권유로 번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周作人 역시 일찍이 1924년에 머레이 교수의 영문본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번역·소개한 적 있다.(<忒羅亞의婦女>, 1924.8. 《小說月報》15卷8號, 《永日集》수록) 周作人은, 反戰 메시지를 보다 '비극'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폭력과 강압행위에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저항정신'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에 애착을 가졌지만 말이다. 중일전쟁 시기 羅念生과 周作人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트로이의 여인들>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根岸宗一郎의 <周作人と《トロイアの女》>(《慶應義塾大學日吉紀要》, 2008) 참고. 羅念生과 周作人이 공역한 《에우리피데스 비극집》은 각각 1957년 1월(1집)과 11월(2집), 1958년 10월(3집)에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48) <亞坡羅陀洛斯>(1944.10. 《藝文雜誌》2卷10期, 《立春以前》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115쪽. 1947년 옥중에서 라우스(W.H.D.Rouse)의 《Gods, Heros and Men of Ancient Greece》(영어책)를 번역했다고 하나, 이 책은 출판사 화재로 원고가 소실되는 바람에 1949년 재번역을 거쳐 1950년에야 출판되었다.

올 수 있었던 周作인은, 1954년 중앙정부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목적으로 원로 지식인이 필요하게 되자 다시 번역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49~1966년 사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는 이데올로기상의 대치 국면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고전들을 번역하는 데 공을 들였다. 서구의 문학이라 하더라도, 19C이전의 유럽문학은 봉건체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구의 고전 중에는 혁명적·진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⁴⁹⁾

周作인은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아비판을 이행하지 못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는 살 수 없었지만, 胡喬木과 周攘의 건의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들이 번역하기 곤란해 하는 일본의 고전작품들과 고대 그리스어를 저본으로 하는 책을 번역함으로써, 그 원고료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번역서 모두 정부가 지정한 人民文學出版社에서만 출판하고, ‘周作人’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고대 그리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한 번역서를 내고자 한 周作인의 오랜 숙원은 중공 당국의 허가 하에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⁰⁾

49) 陳鳴, 《操控理論視覺觀照下當代中國的外國文學翻譯研究(1949~2008)》, 山東大學 博士論文, 2009.8. 71~77쪽. 陳鳴에 따르면, 周作인이 루키아노스 작품을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다음해(1963년)부터,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봉건시대와 자본주의의 문학과 예술은 열렬히 옹호하면서, 사회주의 문학과 예술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론화되어, 1960~66년 사이 전체 번역의 양이 기존보다 1/3로 급감했다고 한다.

50) 耿傳明, 《周作人的最後22年》, 中國文史出版社, 2005. 161~163쪽. 중공 정부가 수립된 후 鄭振鐸은, 문화부 문물국국장·문화부 부부장·문학연구소 소장 등의 직책을 역임했으나 하는 일이 주로 외국과의 교류에 집중되었다.(散木, <鄭振鐸最後的日子>, 《文史精華》總163期, 2003.12 참고) 周作인이 毛澤東에게 쓴 서신조차 직접 전달되지 않고 胡喬木과 周攘의 구두보고를 통해 중간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니, 어쨌든 이 두 사람이 周作인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鄭振鐸 역시 1958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던 그 해에 ‘자산계급우파’로 몰려 비판받기도 했지만, 죽고 난 뒤의 일이라 老舍·傅雷·周作인과 같은 곤혹은 치르지 않았다.

4.2. 학자형 번역가: 비판문헌학적 접근

周作인은 고대 그리스어로 된 루키아노스 책을 손에 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1924년에 일부 번역한 <기녀들의 대화> 역시 영문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⁵¹⁾ 1912년부터 미국의 룽(Loeb) 고전총서가 출판되기 시작했지만, 총8권으로 기획된 루키아노스의 책은 1921년에서야 1권이 출판되었고, 周作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집》이 수록된 루키아노스 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루키아노스의 일곱 번째 책이 출판된 1961년에도 구할 수 없어서 외국 대학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간신히 구할 수 있었다.⁵²⁾

룽 고전총서는, 앞서 출판된 본 총서(Bohn's library)와 달리, 고대 그리스·라틴어를 영어와 동시에 제시하고, 대학에서 고대 그리스·라틴어를 가르치는 전문교사를 편집자로 영입하여 신뢰할 만한 영문해석본을 싣고, 전문가들도 쉽게 소장할 수 없었던 소외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들까지 목록에 포함된 특징이 있다. 고전에 대한 지식은 상류층의 표지가 아니라 인간을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는 다소 엘리트적인 신념 하에서 기획된 룽 고전총서는, 외설스러운 고대 작품이라 하더라도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고 완곡한 영어해석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애초에 예상했던 독자층을 넘어서

51) 1924년 周作인이 저본으로 했던 책은, 《The works of Lucian Samosata》(Volume. 1~4)(Oxford: The Clarendon Press, 1905)이다. 번역자는 사전 편찬으로 명성을 얻은 전문 사전편찬자인 H.W.Fowler(1858~1933)와 그의 동생 F.G.Fowler(1871~1918)이다. F.G.Fowler는 《The King's English》를 쓴 작가이다.

52) 周作人 譯, <關於路吉阿諾斯>, 《路吉阿諾斯對話集》下(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776쪽. 그러나 본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룽 총서의 루키아노스 책은 제1권(1913년)·제2권(1915년)·제3권(1921년)·제4권(1925년)·제5권(1936년)·제6권(1959년)·제7권(1961년)·제8권(1967년)에 출판되어, 周作인의 기억과는 차이가 난다. 원래 룽 총서 자체가 유럽에서 원본을 발굴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 이후 출판된 책은 중국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1930년에 戴望舒가 불어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기녀들의 대화>를, 고대 그리스어와 대조해서 교정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을, 자기 손에 원전 책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고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후 戴望舒의 불어본 번역서가 출판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다.

학자와 대중에게 동시에 환영받았다.⁵³⁾

周作人이 루키아노스 작품의 저본으로 룽 총서를 선호했던 이유 역시, 그가 처음으로 고대 그리스어를 배울 때 사용했던 교재와 체제가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쪽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조해서 보기 좋게 영어 번역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고대의 작품들은 각 판본에 따라 내용 자체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周作人은 기왕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본을 입수하고자 했다.⁵⁴⁾

그가 번역한 《대화집》의 번역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역보다는 직역을 원칙으로 했으며, 번역어로 선택하는 단어에 周作人 특유의 심미안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겠지만,⁵⁵⁾ 본고에서는, 각 편의 서두에 철저히 번역자의 관점에서 쓴 작품에 대한 개요와 해설을 첨부했다는 점,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풍부한 각주를 적극 활용했다는 데 주목해 보고자 한다.⁵⁶⁾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나로서는 불분명한 것이 있는데, 특히 루키아노스에

53) Kevin B. Sheets, <Antiquity Bound: The Loeb Classical Library as Middlebrow Cul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the Gilded Age and Progressive Era》, April 2005, 155~164쪽 참고. 룽 총서(Bohn's Libraries)는 Henry George Bohn(1796~1884)이라는 영국출판업자가 대중시장을 겨냥하여 1846년부터 출판한 고전총서이다.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의 질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문판으로 저가 공세를 통해 시장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룽 총서는, 영국에서 고대 그리스·라틴어 원본 독서를 정착시킨 W.H.D.Rouse(1863~1950)를 핵심 편집인 중 하나로 영입하여, 전문성과 번역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 周作人이 두 차례나 번역해야 했던 《Gods, Heros and Men of Ancient Greece》가 바로 이 라우스가 쓴 책이다.

54) 실제로 周作人이 1920년대 때 영문판 텍스트에 근거하여 번역한 루키아노스, 에우리피데스 작품의 내용과 1950, 60년대 고대 그리스어 텍스트의 번역본 내용은 많이 다르다.

55) 羅念生, <周啓明譯古希臘戲劇>(《名人筆下的周作人》, 東方出版中心, 1998), 195쪽. 周作人은 루키아노스 작품의 번역 원고를 羅念生에게 보내어 반드시 교정을 보았는데, 이때 羅念生은 周作人의 단어 선택과 번역 문체가 상당히 개성적이라 본인이 교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56) 周作人은 아폴로도로스의 <그리스 신화>을 번역할 때, 제임스 프레이저(J.Frazer)의 번역본 주석을 따르되, 중간에 덧붙이거나 원래 주석이 없는 곳에도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역자가 주석을 붙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주석 내용을 확인해 보면, 프레이저는 이렇게 보는 반면 독일 학자는 다르게 보는데, 본인은 또 다른 자료를 덧붙이며 이 학설이 좀 더 타당하다는 식으로 작성했다.(<希臘神話>, 1944.10. 《藝文雜誌》2卷10~12期, 《周作人文類編⑧》, 119쪽)

관한 것이다. 그가 쓴 것은 훌륭한 고대 희랍어였는데, 20 경의 그리스어와는 이미 거리감이 있다. 이를 태면 기독교의 《신약》이 소위 ‘구어(普通話)’로 기록되었듯이 말이다. 그가 쓴 작품들을 일반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한동안 그는 자신의 고향인 시리아에서 웅변가를 직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이방인(夷人)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⁵⁷⁾

이 작품 속 기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원문은 헤타이라(hetaira)로, 헤타이로스(hetairos)를 여성화한 말이다. 본래 뜻은 ‘동반자(伴侶)’로, 옛날에는 수많은 학파와 정당들을 모두 ‘헤타이로스’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헤타이로스였고, 여류 시인 사포(Sappho)의 여학생들을 헤타이라로 불렀으니 성별이 여성인 동반자(女伴)라 번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 단어 역시 따라서 변하는 법, 점차 남성의 여자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도하는 상대 또는 기녀라는 뜻이 생겼는데, 가리키는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단어를 사용했다. ... 그리스 문화라고 하면 여태까지 줄곧 이오니아(Ionia)를 正宗으로 삼는데, 다시 말하자면 아테네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아테네의 여성의 교육과 문화 방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솔직히 어떠한 칭찬할 만한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문명은 서구 문화의 원류이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치 동양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소아시아 연안의 제도(諸島)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더욱 개방적이며, 신선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⁸⁾

전자는 周作人이 루키아노스라는 인물에 관해 소개하는 글 중 일부로서, 먼저 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덧붙인 내용이다. 얼핏 보더라도 역자가 원 저자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많이 다르다. 周作人은 루키아노스에 관해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가 타지 출신으로서 고대 그리스어로 된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았는데,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barbaros(영어 barbarian의 어원)’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당시에는 차별적인 뉘앙스를 내포한 것이 아니기는 했지만, 에게 해 지역에서 ‘그리스’와 ‘그리스가 아닌 지역’이 암암리에 구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57) 周作人 譯, <關於路吉阿諾斯>, 《路吉阿諾斯對話集》下(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772쪽.

58) 周作人 譯, 《路吉阿諾斯對話集》上(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233~234쪽.

후자는 <기녀들의 대화>의 각 대화에 앞서, 이 대화편의 전반에 대해 개괄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고급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는 ‘헤타리아’의 유래에 대해 대단히 상세하게 고증한 것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명=아테네’라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는 여러 도시국가들로 구성된 사회였다는 것과 아테네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역자 개인의 시각이 적극 반영된 소개글인 듯하지만, 실제로 고대 그리스사회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공존하는 형태였으니까, 반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객관적인 글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서양의 민주주의는 고대 도시국가에서 기원한다고 하지만, 그 민주라는 것이 ‘노예제도’ 위에서 있었다는 사실과 금속을 발명하고 정복전쟁을 하면서부터 여성의 지위는, 집안일을 돌보기 위한 부속품으로 더욱 굳혀지게 되었음을 상기시켜주는 해설이라 볼 수 있다. 周作人이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 중 한 인간으로서 시인으로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바로 전설적인 여류 시인 ‘사포’였다 것은, 그러한 아테네의 풍토로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⁵⁹⁾

천상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를 가리킨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두 가지 칭호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 시민의’ 이란 뜻의 판데모스(Pandemos)와 다른 하나는 ‘천상의’라는 뜻의 오우라니아(Urania)인데, 둘 다 똑같이 사랑의 여신을 가리킨다. 그 차이는 전자는 아테네·테베 등과 같은 도시에서 숭배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후자는 키프로스(Kypros) 섬, 코린토스 시에서 숭배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동방의 사랑의 여신에 가까울 따름이다. 플라톤은 대화집 《향연(Symposion)》에서 사랑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신의 호칭 역시 구별하여, 천상의 아프로디테는 신성함을 가리키고, 전 시민의 아프로디테는 범속하고 열등함을 가리킨다고 했다. 후세의 문인들이 플라톤 식의 사랑을 높이 받들어 이로부터 일반화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플라톤의 한때의 궤변으로, 현대 신화학자들은 모두 그의 학설을 믿지 않는다. 실제적인 구분은 바로 상술한 바와 같으니,

59) 사포에 대한 周作人의 애호는, 1914년(<薩復>《中華小說界》2月2期, 《自編文集》미수록)부터 1951년(A.Weigal著·周遐壽譯, 《希臘女詩人薩波》, 上海出版公司, 1951)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대철학자가 말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하겠다.⁶⁰⁾

위 인용문은, 어떤 기녀가 동료 기녀의 애정 사업이 잘 되어가는지 물으니까, 부끄러운 일은 너무 상세히 묻지 말라며 ‘천상의 여신께 맹세컨대,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크로비러(Krobyle)와 코린나(Korinna)>)라는 대목에서 周作人이 붙인 각주이다. 아마도 다른 번역자였다면, 굳이 이 구절에서 ‘아프로디테’에 관한 장황한 설명은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周作人의 번역 원고는, 상기한 바와 같은 방대하고 번거로운 각주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덜어내고 줄일 것을 요구받았지만, 周作人이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⁶¹⁾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을 가리킨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도 이 대화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作人의 각주를 읽어보면, 아프로디테를 명명하는 방식을 통해 거꾸로 동방(이집트)·아테네·키프로스 지역의 풍토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동방의 사랑의 여신에 가깝다’고 한 표현은, 신화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아프로디테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

일찍이 그가 아폴로도로스의 《그리스 신화》 제1장을 번역할 때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설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아프로디

60) 周作人 譯, 《路吉阿諾斯對話集》上(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284쪽.

61) 본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周作人이 루키아노스 번역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자 한 록 총서 Volume7(1961년) 자체에는, 각주가 거의 없다. <기녀들의 대화>만 예로 들어 보더라도, 록 총서는 15개, 周作人은 96개의 각주를 달았다. 록 총서의 각주 중에 周作人이 참고한 것은 실제로 5~6개에 그치며, 록 총서의 각주가 몇 단어에 불과한 것을 周作人이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3~4줄에 걸친 상세한 설명을 붙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3년판 Volume1은 구할 수가 없어서 1928년판 Volume1을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로이다. Fowler 형제의 영문판(<http://sacred-texts.com/cla/luc>) 역시, 한 작품에 몇 개 정도의 각주만 등장한다. 그리고 羅念生이 번역한 루키아노스의 작품집(《羅念生全集》第6卷)에는, 4개의 ‘대화 시리즈’가 아예 없으며, 수적·질적으로 周作人의 각주와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周作人이 1937~38년 아폴로도로스의 《The Library》를 번역할 때 사용했던 록 총서의 저본(James Frazer번역, 1921년)은, 방대하고 상세한 각주 때문에 오늘날까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키아노스 시리즈에는 각주가 너무 적다. 록 총서의 다른 시리즈를 다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프레이저와 같이 번역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리스 신화 내용과 등장인물 및 그리스 풍습이 서양인에게는 교육이나 다양한 예술 형태를 통해 문화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각주를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테가 본래는 '외래의 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⁶²⁾ 또, 라우스(W.H.D.Rouse)의 《그리스 신들과 영웅》의 역자 후기에서도, 같은 책 안에 첫 부분에서는 에로스(즉 큐피트)가 카오스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훌륭한 자식이라고 하더니, 책의 끝 부분에 가서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래 아프로디테는 고대 바빌론과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 사회로 들어온 신인데,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아프로디테가 외래 신에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남성 신으로 상징하기 위해 에로스가 필요했다고 소개한 것을 보면,⁶³⁾ 그가 아프로디테 형상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자료를 섭렵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周作人の 주석을 통해, 한때 대철학자의 해석이, 단지 그의 명성과 시대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없이 정설로서 통용된 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명 당시부터 고대 후반, 중세, 오늘날의 신화학에 이르는 해설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내린 결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필요하고 과한 각주로 보였던 것이, 周作人の 입장에서는 왜 반드시 본문과 함께 같이 달려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⁶⁴⁾ 周作人에게는 루키아노스의 풍자적인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소위 '학계의 통념 = 편의상의 개괄'임을 확인시켜주는, 비판문헌학으로서의 '고증'을 번역과 동시에 하고자 한 차원에서 수많은 각주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2) <希臘神話>(1944.10. 《藝文雜誌》2卷10~12期), 《周作人文類編⑧》, 132~133쪽.

63) <關於希臘的神與英雄>(《自編文集》 미수록), 《周作人文類編⑧》, 90쪽.

64) 周作人은 다른 사람이 번역한 프랑스 작가 피에르 루이스(Pierre Louys)의 《아프로디테》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죽은 헥토르를 아내 안드로마케가 끌어안고 우는 대목 중, '팔이 하얀 안드로마케가 두 손으로 살인자 헥토르의 머리를 받쳐 들고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살인자'라고 번역했던 단어의 고대 그리스어는 'androphonos'로, 이것은 풀이하자면 '사람이 죽을 때 '억' 소리조차 나지 않게 누운 풀처럼 살인한다'는 뜻으로 전혀 약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리스 문학을 번역할 때는 주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希臘의古歌>(1930.6. 《駱駝草》, 《看雲集》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35~237쪽.)

4.3. 허구 또는 부차적 담화 속에 비치는 ‘실재’

루키아노스의 작품이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에 의해 번역된 뒤, 그는 서양문학사에서 ‘풍자가’로서,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周作인이 번역한 《대화집》 역시 ‘풍자’라는 수사법이 돋보이는 그의 대표작이 수록된 작품집으로, 그리스 신화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불평·비난·하소연·말다툼을 주고받는 이야기(<諸神對話>),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서 생전의 지위·업적·외모·권력·재산 등을 가지고 우열을 다투는 이야기(<死人對話>), 어떤 이의 황당무계한 모험 이야기(<眞實的故事>), 인간의 세속적 욕망들이 죽고 나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관한 갑론을박 등(<卡戎>, <過渡>)을 담고 있다.

작품 자체의 수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풍자문학의 효시답게 신화 속 여러 신들이 기존의 그리스 신화를 통해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철학자와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불러다 심문을 하고, ‘판타지 소설’의 원류답게 1인칭 화자가 달·태양 종족과 전쟁을 겪거나 고래 뱃속의 나라에서 살기도 하는 등 그 모험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스케일이 크면서도 과장되어 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부와 권력, 명성과 현명함은 죽는 순간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고, 죽도록 고생만 했던 노예들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러서는 하데스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박한 삶에 대한 교훈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루키아노스의 작품은 ‘풍자’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周作인의 번역집 속에 수록된 작품만 하더라도, 기존 그리스 신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신들과 바람들이 이야기하는 목가적인 분위기(<海神對話>), 그리스·로마 시대의 매춘 풍토와 각종 풍습을 짐작케 하는 기녀들(<妓女對話>), 인물만 그리스 신화에서 빌려왔을 뿐 실은 초기 로마시대의 유·무신론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제우스(<宙斯被盤問>, <宙斯唱悲劇>),

루키아노스가 정말 헬레니즘의 유산을 풍자하고자 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漁夫>)과 같이, 통상 루키아노스를 설명하는 '환상 소설'이나 '풍자'와 거리가 먼 것도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매혹되어 배를 항구로 몰아 닻을 내리고는 육지로 올랐다. ... 우리는 도중에 파수꾼과 순찰자들로부터 들어서, 이 섬이 소위 '축복 받은 사람들의 사는 섬'이라고 불린다는 것, 관리는 크레테 사람 라다만튀임을 알게 되었다. ... 첫 사건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에 대한 재판으로, 그가 영웅들과 함께 지낼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는 광기에 빠져서 자살했다고 한다. 많은 논의 끝에 라다만튀스는 지금 그에게 바람꽃을 먹여야겠으니, 그를 코스 출신 의사인 히포크라테스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그의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영웅들의 잔치에 참석하도록 했다.⁶⁵⁾

시간이 흘러 그들이 사는 곳의 경축일이 다가왔다. 바로 죽은 사람들의 축제였다. 이 경기 대회 심판은 아킬레우스가 맡았는데 이미 다섯 번째였다. 그리고 테세우스가 일곱 번째로 맡는 참이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다. 레슬링에서는 카라노스가 이겼는데, 헤라클레스의 자손으로서, 오딧세우스를 물리치고 화관을 받았다. 권투에서는 이집트인 아레이오스 - 그는 코린토스에 물렸다 - 와 에페이오스가 비겼다. 여기 그들 세계에서는 전력전에서 상품을 주지 않았다. ... 시인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사실 호메로스가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헤시오도스가 우승했다.⁶⁶⁾

상기한 인용문 두 편은, 周作人이 처음 읽을 때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가 떠올랐다고 하는 판타지 소설의 원류 <眞實的故事>의 한 대목이다. 주인공 일행이 그래 배속에서 탈출한 뒤, 파도가 이끄는 대로 항해하다가 도착하게 된 어떤 섬에서 목격한 일을 나열한 것인데, 단지 '환상'과 '허구'로만 보기에는 낮은 것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아이아스·아킬레우스·오딧세우스·에페이오스(트로이 목마 제조)는 모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리스의 영웅들이며, 레슬링 경기·레

65) 周作人 譯, 《路吉阿諾斯對話集》下(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583쪽.

66) 상계서, 589쪽.

슬링과 권투를 혼합한 경기(즉, 전력전)·최고 작가 선발대회·광기 치료제로 쓰인 바람꽃 역시 그리스의 풍습·풍물이고, 힉포크라테스(의사)·카라노스(마케도니아 국왕)·아레이오스(철학자)·호메로스·헤시오도스는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의 실제 인물들이다. 루키아노스가 만든 환상의 세계는, 사실 책을 좋아하는 본인의 학구적인 성향에 기반한 것으로, 철저히 현실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周作인이 루키아노스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해 했던 언어의 문제도, 마케도니아 제국의 통치 하에 놓여있던 영역과 초기 로마제국의 영역이 대체로 겹치기 때문에, 'barbaroi(lacking refinement)'라는 것도 실은 '액센트'와 '단어' 정도의 차이이지 오늘날과 같은 '언어'의 차원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⁶⁷⁾

루키아노스가 '웃음'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그가 환상을 그려내기 위해 가져온 모든 것들은 그가 살았던 시기(2C 로마)까지 내려온 수준 높은 문화를 아주 진지하게 가져온 것이었다.⁶⁸⁾ <漁夫>에는, 선배 철학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루키아노스가 지식을 '拍賣'했다는 식으로 후세에게 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따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루키아노스는 지식을 판 것은 고대 철학자들임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칭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람들, 즉 그리스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하는 부분이 있다.⁶⁹⁾ 루키아노스의 풍자는 모든 권위와 쟁취함을 비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와 '공동의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글쓰기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루키아노스의 글은 선대 작가들의 철저한 모사품이자 동시에 그 자체로 오리지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루키아노스는 그리스의 유산과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환상 서사'를 활용한 것이 아니다. 주인공 일행이 고래 뱃속에서 수년 간 살다가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결국은 '축복 받은

67) C.P.Jones, 《Culture and Society in Lucian》(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6~8쪽.

68) 상계서, 149~156쪽.

69) 《路吉阿諾斯對話集》下(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718~724쪽.

자들이 사는 곳' 즉 '그리스'였던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周作人は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古書를 수집하고, 잡다하면서 방대한 독서를 통해 본인이 메모하고 발췌해 뒀던 동서고금의 문장들을 이어 붙이고, 여기에 간단한 첨언이나 비평을 붙이는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일명 '文抄公體(초록체)' 산문을 쓰면서, 그는 그간의 '정감 감응으로서의 문학(literature)'의 영역을 확장시켜 훨씬 더 포괄적인 비평용어에 가까운 '文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만약 먼저 野史를 읽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다시 正史를 읽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독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멋대로 함부로 판단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니, 책 속에서 지식을 얻는다면, 그 결과는 항상 폐해가 없을 것이다.⁷⁰⁾

《諸神對話》는 루키아노스의 주요 저작 4종 중 하나로서, 그리스 신화 속의 여러 신들을 각색한 것이다. 비록 신의 신분을 하고 있지만 모든 말과 행동은 보통 사람들과 같다. 이 점에 작가가 풍자하는 바가 있지만, 그리스 신화의 본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예부터 이집트·인도·그리고 헤브라이의 신들은 위대하고 위엄을 갖추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너무 신성하여 인간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마치 괴물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⁷¹⁾

서양에서 서사(narrative)가 기본적으로, '진실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주장과 '아름다움 없이 오직 사실만'을 추구한다는 역사기술학에 있어서의 입장차가 대립해 왔다면, 중국에서는 오로지 실제로 일어난 것만이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正典式 글쓰기'와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불충분한 글쓰기'로서의 역사해석학적 측면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⁷²⁾ 그렇기 때문에 佚事·한담·불완전한 사상·미완성의 이론을 풀어내는 저작은, 항상 '부차적인 담화'로서 재야에서만 통용될 수밖에 없었다.

70) <十堂筆談之五>(1945.1.4, 《新民聲》, 《立春以前》 수록), 《周作人文類編②》, 318쪽.

71) <諸神對話>, 《路吉阿諾斯對話集》下(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3쪽.

72) 루샤오핑, 《역사에서 허구로》(길, 2001), 21~36쪽 참고.

周作人は‘筆記散文’·‘尺牘’·‘野談’을 통해, 전통문화를 채우고 있었던 ‘正統’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의심해 보고, 공식기록과 주류적 글쓰기의 하류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부차적인 담론들을 들춰내고 싶어 했다. 대대로 소외되어 왔던 부차적 차원의, 하찮지만 이 역시 중국의 전통에 속하는 것들을 통해, 역사에 잠재해온 다양성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는 루키아노스의 작품들에서, 중국의 여러 문인필기들을 접할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고증의 癖과 사실의 기록 및 진실성을 위해 허구를 넘나드는 중국 특유의 글쓰기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周作인이 루키아노스의 《대화집》을 번역하기 전에 아폴로도로스의 《希臘神話(신들의 계보)》(1938), 제인 해리슨의 《希臘神話論(Mythology)》(1938), 라우스(W.H.D.Rouse)의 《希臘的神與英雄(Gods, Heros and Men of Ancient Greece)》(文化生活出版社, 1950)을 굳이 번역·출판하고자 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양의 正史와 다른 서양의 野史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중국의 正史에 가까운 글쓰기를 보여주는 아폴로도로스의 신화, 대중적으로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라우스의 신화, 여러 신들에 관한 각종 기원과 그 변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제인 해리슨의 해설까지 함께 소개한 것은, 경전적 저서에 밀려 항상 역사의 뒤편으로 한발 물러나 있었던 野史 혹은 신화의 세계로 중국 독자들을 초대하는 周作人の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周作人は ‘터무니없는 상상’과 ‘부차적인 담화’야말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고, ‘人情物理’에 충실한 본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루키아노스라는 고대 로마 작가의 《대화집》은, 그리스·로마 사회에 대한 어떠한 공식 기록보다 훨씬 해박한 근거를 바탕으로, 생동감있게 ‘진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들의 신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周作人の 심미안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루키아노스의 황당무계한 ‘상상’과 ‘재설정’을 통해 神性を 털어내 버리고 재탄생한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보

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들이 되어야 만 비로소 종교의 신이 아니라 문학의 신이 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周作人は 바로 이렇게 보통 명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보통 명사는, 오랜 문헌에서 과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³⁾ 그리고 이것이 그가 서양식 野史 《루키아노스 대화집》을 빌려 표현하고자 한 문학의 이치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周作人의 전방위적인 외국문학 번역작업 가운데 고대 그리스문학에 대한 애호는, 일본 유학시절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서부터 사망하기 전 《루키아노스 대화집》을 탐고하기까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초기에는 중국의 문학관념 ‘文辭’와 서구 근대의 ‘literature’와의 대조에 힘써 ‘文 또는 說部’와 ‘學’으로 나누어 문학론을 전개시켰다고 한다면,⁷⁴⁾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갈수록 ‘文’과 ‘說部’를 역사·철학과 통합하여 광범위한 비평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학론을 발전시켜 갔다고 하겠다.⁷⁵⁾

73) 위블리(C. Whibley, 1859~1930)가 헤론다스를 평가하면서 한 말로, “소제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취했지만, 그것을 실제에 부합하게 사용했으니, 2천 년의 세월도 그러한 그림의 진실을 손상시킬 수 없었다. 이 책은 결코 어제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현대적이다.”(<古希臘擬曲>(1930.9. 《駱駝草》, 《看雲集》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196쪽 참고.)

74) “世之現爲文辭者, 實不外學與文二事, 學以益智, 文以移情”, <紅星佚史>(《苦雨齋序跋文》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529쪽.

75) “中國學者以神話爲迷信, 彷彿是科學之大敵, 外國學者則以神話爲人民對於環境之反應, 認爲有史前的歷史”, <論鬼臉>(1925.8. 《語絲》42期, 《自編文集》미수록), 《周作人文類編》⑧, 43쪽.

그리고 그의 신화학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어떤 민족의 원형심리와 그 민족이 대대로 만들어온 어떤 가치라는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보편심리와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통로로 간주되었기에,⁷⁶⁾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에까지 확장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학운동을 전후로 하여 그의 문학론은 '계몽적 구국'에서 '자아 표현'으로, 이후 言志/載道の 갈마듬의 문학사관(《中國新文學的源流》)이라는 측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집필활동을 추적해 보면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학론을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국 부역자'라는 신분 때문에 單位에 소속될 수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루키아노스와 같이 시공간의 격차가 큰 타인의 글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세속적 서사 또는 非正典式 담화에 익숙했던 周作人으로서의 나름의 방편이 되어주었다고 하겠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든 周作人 본인의 입장이든 서로 同床異夢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보다 일찍 자국어로 번역된 루키아노스 작품집을 읽을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周作人의 고대 그리스 문학에 대한 애호를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 參考文獻 >

周作人 譯, 《路吉阿諾斯對話集》上·下,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3.

《周作人文類編②, ⑧》, 湖南文藝出版社, 1998.

《知堂回想錄·上》, 河北教育出版社, 2002.

周作人, 《歐洲文學史》, 東方出版社, 2007.

《學衡》13期, 14期, 23期, 1923.1, 1923.2, 1923.11.

76) <我的雜學之六>(1944.6.11. 《華北新報》, 《苦口甘口》 수록), 《周作人文類編⑧》, 2쪽.

- 《羅念生全集》第8卷, 上海人民出版社, 2004.
- 耿傳明, 《周作人的最後22年》, 中國文史出版社, 2005.
- Irving Babbit著·張沛, 張源 譯, 《文學與美國的大學》, 北京大學出版社, 2004.
- 《名人筆下的周作人》, 東方出版中心, 1998.
- 루샤오펑,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앙드레 보나르, 《그리스인 이야기1》, 책과함께, 2011.
- _____, 《그리스인 이야기3》, 책과함께, 2011.
- M.I.핀리·이용찬 외 옮김, 《그리스의 역사가들》, 대원사, 1991.
- 이탈로 칼비노 지음·이소연 옮김,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 제리 무어 지음·김우영 옮김, 《인류학의 거장들》, 한길사, 2002.
- C.P.Jones, 《Culture and Society in Luci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丁欣, 《中國文化視野中的外國文學》, 復旦大學 博士論文, 2004.
- 韓笑, 《發先聲於譯林, 求新知於異邦: 周作人的外國文學譯介》, 吉林大學 碩士論文, 2012.
- 王順曉, 《吳宓在清華大學的教育實踐研究(1925~1937)》, 河北大學 碩士論文, 2007.
- 彭麗榕, 《世界書局文學出版情況研究(1917~1949)》, 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10.
- 陳鳴, 《操控理論視角觀照下當代中國的外國文學翻譯研究(1949~2008)》, 山東大學 博士論文, 2009.8.
- 姜娜, 《1930年代的鄭振鐸和他的多重文化空間》, 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5.
- 付偉, <從《世界文庫》看鄭振鐸出版策劃的成功與失敗>, 《文教資料》, 2012.4.下旬刊.
- 杜心源, <‘西方古學的東方面相’>, 《中國比較文學》總第85期, 2011年第4期.
- 張黎明, <鄭振鐸出版活動探析>, 《北京大學學報》第46卷第1期, 2009.1.
- 黎楊全, <解讀周作人的《對話集》情結>, 《楚雄師範學院學報》第22卷第11期, 2007.11.
- 王宏志, <‘人的文學’之哀弦篇: 論周作人與《域外小說集》>, 《Journall of Chinese Studies》No.46, 2006.
- 劉全福, <‘主美’與‘移情’: 周作人古希臘文學接受與譯介思想述評>,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第29卷第4期, 2006.7.
- 陳言, <抗戰時期翻譯文學述論>, 《抗日戰爭研究》2005年第4期.
- 散木, <鄭振鐸最後的日子>, 《文史精華》總163期, 2003.12.
- 鄭家建, <遙遠的回響: 《故事新編》與《盧奇安對話集》的比較研究>, 《魯迅研究月刊》第11期, 1999.
- 姚丹, <西南聯大中文系, 外文系和校園里的新文學創造>,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9.01期.

根岸宗一郎, <周作人と<トロイアの女>>, 《慶應義塾大學日吉紀要》, 2008.

_____, <周作人とH.S. タッカー>, 《中國研究月報》55號, 2001.

_____, <周作人とギリシア文學: 1921年における轉回を中心に>, 《東京大學中國語中國文學研究室紀要》第3號, 2000.4.

Julie Sparks, <At the Intersection of Victorian Science and Fiction: The Romance of the First Radical>,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1889~1920》Vol.21, No.2, 1999.

Eric L. Montenyohl, <Andrew Lang's Contributions to English Folk Narrative Scholarship>, 《Western Folklore》Vol.47, No.4, 1988.

Robert Michalski, <Towards a Popular Culture: Andrew Lang's Anthropological and Literary Criticism>, 《Journal of American Culture》Vol.18, Issue3, 1995.

Andrew Lang, <The Mimes of Herondas>, 《The Contemporary Review》Vol.60, 1891.

Kevin B. Sheets, <Antiquity Bound: The Loeb Classical Library as Middlebrow Cul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the Gilded Age and Progressive Era》, April 2005..

< Abstract >

Zhou zuoren's devotee of ancient Greek literature is noteworthy, because of his aesthetic of the literary works. When he had studied in Japan, he had learned ancient Greek philology from Henry St. George Tucker who was a priest of American Anglican Church. They used the textbook which was written by Platon and Xenophon, but Zhou didn't show any interest in those. From that time, Zhou had eagerly read works that was written by Theokritos, Herondas, Lukianos, Longos as a second-rate writer, then had translated into Chinese and submitted on some magazines.

Andrew Lang who was a famous English anthropologist in the late 19th

century was an important scholar that effected on Zhou's mythology study.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Folklore pursued by Lang legitimated the role of 'the people' in the production of culture. And Lang demonstrated the absurdity of academic tendency in a fictional parody of Tyler's method. Zhou zuoren could find one of the writing styles from Lang's works. That was very similar with Chinese traditional writing style that had so-called 'yeshi(野史)'.

In the 1960', Zhou zuoren began to translate Lukianos's 《Dialogues of the dead》 series. The translation that Zhou did was very unique, because of the selected Chinese words and footnotes that was reflected by Zhou's scholarship. Zhou zuoren thought that role of literature was to express human lives' truth through fictional narrative as well as historical things. Zhou zuoren's works of translation was not only introduction about an ancient Greek work, but also was a sort of substitute for his literature theory.

Key words: Zhou zuoren, Andrew Lang, Lukianos, Dialogues of the dead, western fiction and eastern 'yeshi(野史)'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10.	2015. 1. 19.	2015. 2. 8.	2015. 2. 28.